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39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지정문화재)·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개요

가.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76호	삼강행실 효자도 (三綱行實 孝子圖)	1책	33.2×21	조선 성종 연간	동대문구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77호	사월 (史劄)	2책	24.6×14.8	조선 성종 연간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78호	소보우공주의 (少保于公奏議)	12책	33.4×21.2	1520년 (중종 15)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79호	고열녀전(언해) (古列女傳(諺解))	1책	31.5×20.2	1543년 (중종 38)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80호	삼강행실도(언해) (三綱行實圖(諺解))	1책	39.5×21.8	조선 선조 연간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81호	서궁일기 (西宮日記)	3책	34×25	1846~1847년 (헌종 12~13)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82호	수선총도 (首善總圖)	1점	76.7×84.3	19세기 중반 추정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나. 지정 사유

**【삼강행실 효자도(三綱行實 孝子圖)】**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1434년(세종 16)에 직제학(直提學) 설순(偈循 ?-1435) 등이 세종의 명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물 가운데 부위자강(父爲子綱),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의 삼강(三綱) 즉 효·충·열에 모범이 될 만한 효자·충신·열녀 각 110인을 가려 뽑아 그림과 글로써 엮은 책이다. 이 중 <효자도>는 조선에서 유교의 근본 강령인 ‘효행(孝行)’을 교화 학습시킬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효행 사례를 발굴하여 편찬한 국민윤리에 관한 교육적 성격을 지닌 대표적 교화서적이다. 이 책은 권수에 세종이 내린 교지(教旨), 그다음에 맹사성(孟思誠)의 진진문(進箋文), 권채(權採)의 서문(序文), 효자도의 총목과 세부 목록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세종 14(1432)년에 정초(鄭招)가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조사 대상본은 표지는 근래 새로 개장되어 있으나, 권수의 진진문과 서문을 비롯하여 도상과 본문, 그리고 권말의 발문까지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삼강행실 효자도>는 1434년에 간행된 원간본을 저본으로 성종 연간에 다시 복각한 중간본이다.

조사 대상본이 비록 원간본을 복각 간행한 중간본에 해당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원간본의 원형을 살필 수 있다는 점과 국내에 그 전존본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조선 전기의 서지학 및 한문학 연구, 미술사 연구의 자료로 평가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월(史鉞)】**

『사월(史鉞)』은 중국 명대 안벽(晏璧)이 편찬한 책으로, 역사의 주벌(誅罰)이라는 의미로 『춘추』에서 붓으로 주벌한다는 “필주(筆誅)”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중국 역대 역사 인물을 유교 사상에 입각하여 간략히 평가한 인물고(人物考)의 성격을 지닌 책이다. 이 책은 상·하 2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상권은 권1~10까지의 권차가 구분되어 있으나, 하권은 권차의 구분이 없이 각도(道)를 구분하고 도 내에서 내용의 항목만 구분하였다. 권수(卷首)에는 1398년에 작성된 동륜(董倫)의 서문과 1410년에 작성된 안벽(晏璧)의 서문이 있고 장차의 구분 없이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의 내용은 삼강 중에 첫 번째인 군위신강(君爲臣綱)에 해당하는 군도(君道)와 신도(臣道)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본은 성종 15년(1484)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갑진자(甲辰字) 소자(小字)를 사용하여 인출한 책이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하였으며 제첩 없이 표지 서명을 필사하였다. 이 책은 조선 전기 금속활자인 갑진자의 소자로만 본문을 인쇄한 책으로 인쇄사적 가치가 있다. 갑진자의 인본은 여러 종류가 전래되고 있지만, 이 책처럼 모두 소자로 간행한 책의 전래는 드물어서 희귀본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 현전본이 비교적 여러 소장처에 완질과 낙질로 전해지고 있음이 확인되나, 지정 신청 자료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소보우공주의(少保于公奏議)】**

『소보우공주의(少保于公奏議)』는 중국 명나라의 무장 우겸(于兼, 1398~1457)의 주의류(奏議類) 글 들을 모아서 편찬한 것으로 모두 10권 12책이다. 존경각 소장 조사대상본은 내사기가 있는 금속활자본으로 1520년경에 을해자로 간행한 책이다. 표지 서명은 ‘우공주의(于公奏議)’이다. 10권으로 구성된 주의(奏議) 내용은 권1~2가 북벌류(北伐類), 권3~4가 남정류(南征類),

권5~10이 잡행류(雜行類)이다.

존경각 소장 『소보우공주의』는 1520년 8월에 당시 예문관 검열이었던 김연(金緣, 1487~1544)에게 반사한 책으로 안동의 오천 광산김씨 종가에서 소장했던 전적이라는 것을 장서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책은 본문에 결락된 것이 없고,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권4의 표지에 약간의 결락이 있으나 원형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소보우공주의』는 국내에 현존본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고려대 만송문고에 권1-3의 3책이 낙질로 남아 있고, 국외에는 일본의 호사분고(蓬左文庫)에 완질이 전해진다. 현존하는 판본이 매우 희귀함에 따라 본 자료는 조선 전기의 어문학, 군사학, 서지학 연구의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열녀전(언해) (古列女傳(諺解))】**

<고열녀전(언해) (古列女傳(諺解))>는 중국 한나라 때에 유향(劉向, 기원전 77년~6년)이 편찬한 『열녀전(列女傳)』을 조선 중종 38년(1543) 말에서 중종 39년(1544) 사이에 한글로 번역하고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비록 권4 한 권만 남아 있는 영본(零本)이지만, 「중종실록」 및 어숙권의 『패관잡기』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국내 유일의 간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현존하는 한글 번역본이 모두 18세기 이후에 간행된 필사본임에 비해 조사대상본만이 유일하게 그림과 한문 원문 및 언해문을 갖춘 목판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이 책은 중종 대의 출판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 이 책의 삽화를 조선 전기 대표적인 인물 화가인 이상좌가 그렸다는 사실은 회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 책의 언해문은 국어사적으로도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傍點)과 ‘△’, ‘○’의 간존, 타 문헌에서 찾기 힘든 한자들의 한자음 등이 반영되어 있어 16세기 언어 사실을 살피는 데에 유용한 자료적 가치도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본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유일한 간본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여겨진다.

**【삼강행실도(언해) (三綱行實圖(諺解))】**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내용을 줄여서 상단에 한글로 번역문을 붙여 성종 12년(1481)에 간행된 것이 초기 언해본으로 추정된다. 효자, 충신, 열녀 중 각 35명을 간추려 뽑아 105명을 수록하였다. 이 책의 효자편에는 각 주인공의 효행 사례를 도상으로 그려서 앞쪽에 수록하고, 다음에 한자를 사용하여 효행 사실을 본문으로 넣고 이어서 시(詩)와 찬(贊)을 배치했다. 상변란 위쪽 서미(書眉)에 언해(국한문혼용)하였다. 시(詩) 부분은 명 초에 간행된 『효순사실(孝順事實)』에 수록된 칠언절구 2수를 옮겨 실었고, 찬(贊)이 없는 경우는 시까지만 수록하고 있다. 본문과 시, 찬은 모두 읽기 쉽게 백권점(白圈點)으로 표점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언해>는 1434년에 간행된 원간본을 저본으로 성종 연간에 언해본 1권으로 간추려 편찬하고, 이 판을 저본으로 1580년경 전라남도 곡성현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언해 중간본이다. 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동일판본이 매우 희귀하다. 또한 이 자료에는 방점 표기의 혼란 및 음운 표기, 문법 등에서 16세기 한글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어 한글 변천사 뿐만 아니라, 서지학 및 판화사적

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 및 연구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 【서궁일기(西宮日記)】

『서궁일기』는 조선의 제14대 왕인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와 그 아들 영창대군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실기문학(實記文學)이다. 『계륙일기』라고도 불리는 이 필사본은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왕실 여성의 삶과 당시 풍속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은 현재 남아 있는 이본 중 원본에 가장 가깝고 필사 시기가 빠르다. 2권 본문 안에 병오년(1846) 및 3권에 정미년(1847)의 필사기가 있다. 원본에 가까운 또 다른 이본인 낙선재본 『계륙일기』는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조선역대여류문집』에 영인된 것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본 『서궁일기』는 조선 후기 여성들의 글읽기가 활발해지는 현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 여성사적인 가치가 매우 큰 자료라고 생각된다. 특히 필사한 여성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물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처로 표기했지만) 여성사적인 가치가 크다. 아울러 조선 후기 여성들의 글읽기, 글쓰기와 의식 성장, 여성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알려주는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수선총도(首善總圖)】

『수선총도』는 목판본(일부 채색) 서울지도로 목판 인쇄된 부분과 필사된 부분이 혼합된 것으로 서울지도에는 흔치 않은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의 사산(四山)과 도성 내부는 목판으로 인쇄하였고 서대문과 남대문 외부 지역은 필사하여 그려 넣었다. 목판 인쇄된 부분에는 일부 채색을 가미하였다. 용산역사박물관본에는 서울역사박물관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한양도성의 서대문과 남대문 바깥 지역을 그려 넣었다. 이 지역은 서울의 성저십리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하고 거주민도 많은 곳이다. 지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조선시대 서울의 난전(亂塵)인 칠패(七牌)가 남대문 밖에 표시되어 있고 서소문 밖으로는 초물전(草物塵), 어물전(魚物塵), 상전(床塵), 미전(米塵)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용산역사박물관 『수선총도』는 목판본 서울지도에 도성의 서부, 남부 지역을 필사하여 보완한 서울지도로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는 희귀성을 지니고 있다. 현존하는 목판본 『수선총도』(서울역사박물관, 영남대박물관 소장)와 동일 판본이지만 수정되기 이전의 초판을 인쇄한 점에서 『수선총도』의 원형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지도의 내용으로 볼 때 목판본 『수선총도』 제작 시기보다 후대인 19세기 중반경에 필사 보완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당시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난전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표시했다는 점에서 서울의 변화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도로 평가된다.

2. 문화재 지정 일자 : 서울시보 고시 일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